

KICEM

##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의 역할과 기능



이진권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센터장

### 1. 우리 해외건설의 현주소

지난해말 우리의 해외건설수주는 실적 누계 6,000억불을 돌파하여 주력 수출부문인 조선, 반도체, 자동차 등과 함께 국가 핵심산업으로 자리매김하였고 2년 해외수주 연속 600억불을 초과할 정도로 외형상 양호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해외 건설플랜트산업은 공사현장내 우리근로자 고용 및 국산기자재 구매 등을 통해 고용·생산증대 효과가 큰 산업으로서 해외 매출액 100억불당 3조 6천억원의 수요창출과 3만 6천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하는 등 해외건설은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산업이다. 그러나 우리 해외수주는 수익성이 낮은 단순 도급위주의 사업이 전체 수주의 8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중동 지역에서의 대기업간의 공동수주를 통해 수주 경쟁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중동, 아시아 지역으로의 수주 집중에 따른 국내기업간의 수주경쟁과다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평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 틈을 타서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된 유럽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는 우리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재정건전성 강화, 공공기관의 부채감축에 따른 토목수주의 확대 제약, 주택공급 과잉 양상지속 등에 따른 국내건설시장의 한계와 건설경기 침체로 우리기업들은 해외시장에서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는 상황이나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인력, 자금력, 기술력, 정보력에서 뒤처져 있는 중소·중견기업들은 해외진출에 더욱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더욱이 전년도 해외수주실적을 보면 현대건설 등 10대 건설사의 수주비중이 89%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소·중견기업의 원도급 수주비중은 3%미만일 정도로 대기업 중심의 편중된 수주

구조를 보이고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중소, 중견기업의 해외 원도급 수주 비중이 2011년 3%에서 2013년 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4년 4월말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 건설업 신고업체는 6,200여개 업체이나 이중 대기업 221개를 제외한 대부분은 중소·중견기업으로서 기업 수에 있어서도 기형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전년도 기준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공종별 수주 실적을 보면 아시아 지역이 70%로서 지역적 편중이 심화되고 있어 특정 지역의 경기변동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의 수주가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보이고 있으며 공종별로 보아도 전체 수주에서 산업설비가 60%임에 비해 중소·중견기업은 토목 건축이 70%를 차지하고 있어 수익성제고 측면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항상 지적되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으로 중소·중견기업은 해외사업진출을 위한 국가별 수주정보, 해외입찰제도 등에 대한 정부가 부족하여 입찰 참여에 애로를 겪고 있는 점과 지속적인 건설 경기 침체로 전반적인 신용등급 하락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조달에도 심각하게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 2.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의 고부가가치화 추진 및 중소·중견기업 지원 필요성

이러한 어려움에 처한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은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산업이라는 측면에서 종전의 수주 패턴에서 벗어나 관련 산업을 고부가가치화 함으로써 수익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제파급효과를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기업의 수주는 발주자가 금융을 주선하고 건설, 플랜트사가 단순시공과 또는 설계·조달·시공(EPC) 등을 담당하는

단순도급에서 시공자금융주선형 사업 또는 투자개발형 사업의 비중을 높여 수익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시급하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기업이 지분투자, 설계, O&M, Off-take 등의 점진적 사업영역 확장을 통해 투자개발형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Developer로서의 역량을 키워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뒤에서 강력하게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지원이 필요하다. 최근 해외수주는 한, 중, 일 국가대항전이 되고 있고 프로젝트 규모가 거액화 추세에 있어 선금융 후발주 형태가 추진되고 있으므로 사업초기부터 금융지원과 자문을 추진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특히 글로벌 건설시장에서 투자개발형사업의 비중이 2010년 기준으로 전세계적으로 24.8%에 이르고 있으나 2012년도에 우리가 수주한 금액 중에서 투자개발형 사업 비중이 2%에 지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책이 다각도로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해외건설플랜트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작년 8월 해외건설플랜트 수주 선진화방안을 발표하였다. 동 방안은 향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기업의 해외시장진출 다변화, 수주저변 확대를 도모하고 고부가가치 사업으로의 진출확대를 지원하는 정책으로서 우리기업의 지속적인 수주 확대뿐 아니라 전문 인력양성을 통한 전문성강화, 해외사업 진출 정보제공 강화, 그리고 범정부적 수주지원 체계구축 등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금년 2월에 발표된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중에 수출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 대한 출자와 출연 등이 포함되어 있어 정책금융지원을 통한 관련 산업의 고부가가치화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부의 수주 선진화방안에는 해외건설플랜트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더불어 특별히 중점을 두는 분야가 바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이다. 대기업은 고부가가치화에 대한 준비, 저가 수주 방지를 위한 공동 수주 대응 노력과 자금 조달력, 인력, 기술력, 정보력에 있어서도 중소·중견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생력이 있다. 그러나 중소·중견기업은 수주 비중 감소, 수주 지역 편중, 수주 공중 편중에다 전반적인 재무 신용악화로 자금 조달 애로까지 겹쳐 침체산중에 있는 형국이다. 최근에는 다행스럽게 해외하도급거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한 표준 하도급계약서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나 해외수주에 있어 하도급 비중이 높다는 것을 감안하면 만족할 만한 조정은 아마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제반 문제점을 일시에 해결하여야 하나 일거에 모든 문제점을 해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우선 시급하고 처리가능한 분야로서 기업에 대한 해외 수주정보 제공과 금융조달 애로 해소가 있으며 이는 정책적인 지원 측면에

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그런 점에서 작년 8월 수주 선진화 방안 중에 포함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입찰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과 금융조달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금융컨설팅 제공 목적의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설립계획이 마련된 것은 중소·중견기업지원에 있어 획기적이고 시의 적절한 조치라고 할 수 있다.

### 3.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의 설립 필요성

정책금융지원센터설립은 금융컨설팅과 정보제공이 목적으로서 그 설립 배경을 자세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최근 지속된 국내 건설 경기의 침체로 중소·중견기업은 그 돌파구를 해외에서 찾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신용등급 하락으로 특히 계약 이행보증, 선수금 환급보증 등 이행성 보증 지원을 받는 점에서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더욱이 해외수주지원을 위해서는 다양한 루트에서의 금융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현재 민간금융기관은 재원조달 및 경험 부족 등으로 해외건설플랜트 수주지원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하므로 정책금융기관이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들은 손실 수용능력이 낮아 해외사업 진출에 신중을 기해야 하며 아울러 해외시장 다변화를 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국가별 수주 정보, 해외 시장 동향, 해외입찰제도 등에 대한 정보 입수에 어려움이 있고 절대적인 네트워크 제한 등으로 해외수주 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있어 입찰 참여에 이중 삼중의 난관에 봉착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 4.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수주정보제공과 금융컨설팅기능을 수행하는 정책금융지원센터

이러한 중소·중견기업의 금융조달과 정보 입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는 수주 선진화방안에 수출입은행에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정책금융 관련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였다. 원스톱 서비스 제공이라 함은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해외건설협회, 플랜트산업협회, 건설공제조합에서 인력을 파견받아 사업 기획, 해외사업 정보제공, 정책금융 자문 및 주선을 일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특별히 금융지원을 담당할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산업은행 등에서 직원을 파견하고 해외수주정보 등을 효율적으로 제공하며 관련 정보와 시

장분석을 담당하는 기관인 협회에서 직원을 파견하도록 작년 말에 수출입은행을 포함한 7개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정책금융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이에 따라 금년 1월 2일부터 센터업무를 시작하였으며 센터는 수주정보, 전문인력, 및 재무신용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센터의 개소식은 금년 1월 13일 개최되었으며 개소식에서 현오석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은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중요한 전환의 기로에 서 있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우리의 주요 수주시장인 신흥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는 등 급변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이 해외 수주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고 컨설팅·금융지원 등 윈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오아시스가 필요하다”며 센터는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여력과 정보가 부족한 중견·중소기업의 입장에서 금융기관의 문턱을 낮추고 부족한 부분을 먼저 채워주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센터의 주요 기능은 정보제공과 금융컨설팅 등 두가지이다. 먼저 정보 제공과 관련해서는 센터는 센터참여기관 및 해외건설 유관기관으로부터 취합한 해외발주 정보 및 해외유상원조사업(EDCF) 등의 정보를 센터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안내 책자를 발간하여 관련 기업 등에 배포하며 해외수주정보 제공, 업계 애로사항 청취, 우리기업의 해외 수주비중과 수주역량제고를 위한 세미나와 간담회를 실시하게 된다.

그 다음이 금융컨설팅으로서 기업이 추진하는 프로젝트에 대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는 것으로서 상담후에 센터에 참여한 기관 중 적격금융기관에 신속히 연계 지원요청을 하고 센터 참여기관의 신속한 금융지원을 유도하게 된다. 물론 여타 건에 대해서는 기업이 금융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완방안을 지속적으로 컨설팅하게 된다. 센터는 정책금융기관과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들이 모두 모여 있기 때문에 상담시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기업에 맞는 금융상품과 적격금융지원기관을 즉시 연결할 수 있어 고객에게 신속성과 편의성을 제공하는 측면에서 윈스톱 서비스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센터는 기업에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주요 업무별로 3개 팀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출자금지원, 이행성보증 등의 경우에는 도급사업팀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스, 자본 투자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개발사업팀에서, 그리고 사업구조지원, 해외수주정보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기획팀에서 자문을

하게 된다. 센터는 최근 상담의 편의를 위하여 대표전화실을 개설하여 기업이 효과적으로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센터의 상담 지원절차를 보면 기업에서 제일 먼저 유선과 직접방문을 통해 상담을 하게 된다. 상담 후에는 센터에서 등급을 분류하여 지원가능성이 있는 프로젝트는 협약기관에 지원을 요청하게 되고 그 이후에 상담 기업은 센터참여기관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고 요청받은 기관은 승인을 하게 된다. 센터에서 상담을 거쳐 센터참여기관에 지원 요청이 된 프로젝트는 신속하고 우선적으로 승인이 되도록 하고 있다. 센터가 중소·중견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으나 투자개발형사업 등의 경우에는 주로 대기업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대기업에게도 금융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투자개발형사업의 경우에는 현지 사업에 차주로서 지분에 참여하는 Equity Financing과 사업주로서의 자격을 보유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대한 컨설팅도 제공을 하게 된다. 센터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하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우리 경제구조에서 허리 역할을 톡톡히 하는 중견기업을 육성하고자 하는 데에도 그 목적이 있다. 수주지역을 다변화하고 공종을 다각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소수의 대기업이 모두 담당하기가 어렵고 일부 지역의 수주 감소시 해외수주에 크게 영향을 주게 되므로 이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다양한 지역에서 수주 활동을 활발히 전개해야 할 중견건설사들의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은 해외건설과 플랜트 산업분야와 관련 금융분야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어 고객의 정보 제공 요청과 금융컨설팅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센터와 같이 정책금융기관과 협회가 모여 발주정보 등을 제공하고 금융컨설팅까지 제공하는 기관은 국내나 선진국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발견하기가 어려운 조직이다. 센터는 총 6개 기관이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이나 다양한 정책금융지원의 tool을 활용하여 해결방법을 강구할 수 있고 해외수주에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여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는 측면에서 참여기관간의 긴밀한 협업으로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해외사업 진출을 위한 길라잡이로서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센터 참여 기관들은 해외건설플랜트 산업의 고 부가가치화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 기관의 핵심 직원들을 파견하였으며 관련 업무 추진이라든가 협약기관간의 협조에 있어 모든 노력과 도움을 아끼지 않고 있어 센터는 어떤 조직보다도 시너지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다.

## 5. 정책금융지원센터 최근 활동 상황

센터는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해외건설절차, 해외발주정보, EDCF사업정보, 해외시장정보, 협약기관 지원제도, 금융컨설팅정보 등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한 해외건설 플랜트 기업에 대해 안내책자를 배포하였고 금년 센터 개소 이래 센터의 활동 상황을 센터에 참여한 기관 홈페이지와 언론 등에 적극 홍보하여 중소기업의 센터 활용도를 제고토록 하였다.

아울러 기업의 애로사항 청취를 위하여 서울과 부산 등지에서 중소기업업을 위주로 수시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해외건설협회와 KOTRA등과 센터업무 소개 설명회도 개최하였다. 특히 간담회에서 중소기업들이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를 수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신용등급저하로 금융기관에서 지원을 받는 것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함에 따라 센터는 재무신용이 부족하나 사업성이 양호한 프로젝트가 수주되었을 경우에 센터에 참여한 정책금융기관 단독으로 지원이 어려우면 센터 주관으로 협약기관간 협의를 거쳐 리스크 분담을 통해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센터에서 사업성 평가 지원을 해외건설협회에 요청하게 되면 기업이 해외건설협회에 사업성평가 의뢰시 지급하는 수수료도 감면토록 하였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해외건설협회에서 사업성평가를 하였으나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가 승인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 수수료를 면제토록 하였다.

센터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금융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센터참여기관에서 신속히 금융지원을 승인토록 하였으며 또한 센터직원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는 현장 마케팅도 병행하여 실시하고 있다. 현장마케팅은 인력이나 시간적인 제약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기업의 센터에 대한 접근성을 보다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센터를 이용하는 기업들은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이중 일부는 신용도가 낮거나 해외건설에 있어 경험이 적은 기업들로서 해외건설에 대한 정보와 자문을 상대적으로 더욱 많이 필요로 하고 있다. 특히 센터는 정책금융기관의 문턱이 다소 높다고 느낀 기업들이 부담없이 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센터에서 컨설팅 범위를 확대하며 애로요인에 대한 해결 방안 자문을 통해 사업을 진척시키고 있는 점은 중소기업의 해외사업추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 6. 해외건설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의 향후 중점 추진 사업

센터는 해외수주에 필요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금융컨설팅이라는 미션을 통해 One-Stop Optimal Solution Provider이라는 비전을 달성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서 센터는 센터의 역할 확대, 중소기업의 수주 확대,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한 민간상업금융기관의 해외건설플랜트 사업 참여 유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센터의 역할 확대와 관련하여서는 센터는 효과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센터에 참여한 기관과 건설·플랜트 유관기관으로부터 해외수주에 실제 도움이 되고 필요한 정보를 취합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중소기업을 위한 해외수주 정보 관련 서비스 제공의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아울러 해외 수주에 관련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해외수주 절차, 시장동향, 금융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자료도 적극 제공할 예정이며 양적으로 충분하고 질적으로 심층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컨설팅에 있어서는 단순히 상담해서 연계지원요청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센터에서 상담을 하고 상담 등급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협약기관에서 승인을 신속히 이행토록 하고 보증료 등이 할인되는 조치 등이 이루어지는 방안을 센터에 참여한 기관들과 협의할 예정이다.

최근 개도국정부에서는 재정부담 완화와 사업효율성 증대를 위해 인프라 사업의 PPP사업 추진이 증가되고 있고 동 프로젝트를 수행시 일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으로 지원하고 나머지는 민자로 추진되고 있으므로 관련 사업에서 우리기업이 수주 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EDCF사업 관련 정보는 물론 관련 사업의 민자 부분에 대한 금융 지원과 관련된 금융컨설팅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우리기업의 해외수주가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두번째 중소기업의 수주 확대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주 역량제고를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센터는 중소기업의 수주 비중 제고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하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글로벌화를 위해서 수주 역량제고를 위한 인력, 기술력 제고 방안을 강구하고 중소기업의 해외수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한다. 특히 중소기업의 해외수주 비중을 높이기 위한 대기

업과의 상생 관련 세미나도 추진할 계획이며 상생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센터에 참여한 기관들과 프로젝트에 대한 신용등급 상향조정과 금융 수혜를 제공하는 방안도 협의할 계획이다. 정부의 경제혁신 3개년계획에도 민관 대중소기업 협업지원을 위한 컨설팅지원,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인센티브 확대 등이 있어 센터, 참여기관, 정부와 공동으로 상생프로그램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중소·중견기업 대상 간담회를 실시하여 해외수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각 기관 및 정부에 전달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해외건설협회의 정책지원센터와 연 1회 설문조사도 공동으로 실시하여 정책 및 금융지원해결방안을 공동으로 모색하는 기회도 갖고자 한다. 특별히 중소기업 해외수주를 위한 정기적인 현장 상담을 통해 중소기업의 해외수주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그리고 정책금융기관의 마중물 역할을 통한 민간금융기관의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 참여 유도과 관련하여서는 센터가 운영하고 있는 정책금융기관협의회와 민간금융협력기관협의회를 활용하여 자금의 가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최근 해외건설 플랜트 수주는 규모가 거액화되고 있고 사업초기에 시공자에게 거액의 금융추진을 요구함에 따라 금융지원이 수주 획득의 관건이 되고 있으나 우리의 경우에는 대규모 중장기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리스크 관리 등의 이유로 자금지원이 정책금융기관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간금융기관의 자금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더욱이 해외건설·플랜트 시장의 변화도 우리기업의 대처를 어렵게 하고 있는 데 유가 상승세 둔화로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하는 중동지역과 석유, 가스 플랜트분야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아프리카, 중남미에서의 인프라 사업발주가 증가될 전망이나 정치적 위험이 높은 저개발국으로의 진출시 정보 부족과 리스크를 고려할 때 민간금융기관의 금융지원은 더욱 더 어려워지고 있다. 따라서 자금의 가용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금융기관의 선도적인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금융기관은 해외건설플랜트 프로젝트에 참여하려고 해도 조달금리가 높아 역마진의 가능성이 있고 장기외화조달이 어려우며 전문인력이나 경험 등의 부족으로 정책금융기관에 비해 해외거래 참여가 극히 저조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책금융기관은 이러한 프로젝트에 대한 여신 지원을 통해 민간금융기관 참여의 마중물 역할을 함과 동시에 민간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보증을 적극적으로 취급하여 민간금융기관의 참여 유도와 국제화를 지원하여 전체적인 자금의 가용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은 해외사업에 있어 부가가치가 높은 투자개발형사업

에 있어 최근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직접 투자 또는 간접투자 등에 있어 다양한 선도적인 참여를 통해 민간금융기관이 참여할 수 있는 터전을 다져야 할 것이다. 센터는 이를 위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 증권사, 손해보험사 등 총 27개 기관이 참여한 금융협력기관협의회를 적극 활용하여 정책금융기관의 노하우를 공유하고 정보교환을 하여 민간금융기관의 해외프로젝트 참여를 적극 확대하도록 할 예정이다.